

사람을 가리키는 ‘-장이/-쟁이’ 파생어

노 명 희*

본고는 사람을 가리키는 ‘-장이/-쟁이’ 파생어를 대상으로 어기의 의미 부류에 따라 파생어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쓰이는지 살펴보았다. ‘-장이’는 [X-장(匠)-이] > X[-장이]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접미사가 되었으며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한정하여 쓰인다. ‘-장이’는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여 ‘기술자, 직업인’의 의미를 지니며 이 의미가 ‘-쟁이’ 파생어에도 확대되어 쓰인다. ‘그림쟁이’류는 ‘-장이’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유지하여 ‘직업’과 ‘전문인’의 의미를 이어받는다. 여기에 ‘-장이’가 지닌 ‘기술자’의 의미에서 사회적인 평가를 반영한 ‘비하’의 의미 자질이 추가된다. ‘거짓말쟁이’류는 ‘-장이’가 지닌 직업의 의미에서 습관적 행위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무식쟁이’류는 사람의 특성이거나 속성을 나타낸다.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류의 어기는 상태(‘무식쟁이’), 성질(‘꿈뽀쟁이’), 종교(‘동학쟁이’), 병명(‘매독쟁이’), 구체물(‘갓쟁이’) 등 다양하다. ‘영감쟁이’류는 어기인 ‘영감’과 파생어 ‘영감쟁이’의 지시 대상이 동일하며 ‘비하’의 의미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친밀 지칭’의 의미를 부가한다. 최근 조어된 ‘끼쟁이, 인기쟁이’ 등에도 ‘친밀 지칭’의 의미 자질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어에서 발견되는 ‘-쟁이’ 파생어의 특징은 기존의 ‘-장이’ 파생어까지 포괄하여 형태가 ‘-쟁이’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고(‘매듭쟁이’) 전문인과 열정의 의미를 추가하면서 평가상으로 개량적 의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장이/-쟁이’ 접미사, 어기의 의미 부류, 재구조화, 의미 자질, 개량적 의미 변화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와 접사가 결합하면서 부가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굴절과 파생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파생접사는 굴절어미에 비해 의미 합성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파생접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미에 비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어기와 접사의 의미 외에 +α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명사 파생접미사 ‘-이’는 어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파생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의미가 생기기도 한다.¹⁾

본고는 사람을 가리키는 접미사 ‘-장이/-쟁이’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접사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합하는 어기를 부류별로 나누어 어기와 접사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어기의 부류에 따라 ‘-장이/-쟁이’ 파생어가 어떠한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지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최근 생성된 신어의 예를 검토하여 변화된 용법이나 의미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장이/-쟁이’ 파생어를 검색하여 사물이나 동식물을 가리키는 단어를²⁾ 제외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그 대상을 한정한다. 어기의 의미 부류 및 어기와의 관계에 따라 3장에서는 ‘-장이’ 파생어를, 4장에서는 ‘-쟁이’ 파생어를 분류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5장에서는 최근 신어에 나타나는 ‘-장이/-쟁이’ 파생어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1)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동사 어기에 결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도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손잡이, 구두닦이, 봄맞이’ 등에서 ‘-이’는 “-하는 물체, -하는 사람, -하는 행위” 등의 의미의 다양성을 보인다. 이 외에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길이, 높이’의 ‘-이₂’가 있고,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하는 ‘절름발이, 개구리, 누더기’의 ‘-이₃’가 있다 (송철의 1992: 23-24, 126-143).

2) ‘-쟁이’ 파생어 중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 예로 ‘밭목쟁이, 목쟁이, 골목쟁이, 곱쟁이, 딱쟁이(“딱지”)’ 등과 ‘쭉부쟁이, 광대소금쟁이, 담쟁이’와 같은 동식물명이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우리말샘》에 등재된 ‘장이/-쟁이’ 파생어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근 자료를 보충하여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장이/-쟁이’의 표기 및 생성 과정

‘장이/-쟁이’에 대한 표준어 규정은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장이’가 결합한 예로 ‘미장이’,³⁾ 유기장을’을 들고, 그 외의 예로 ‘멧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발목쟁이’를 들고 있다(표준어 규정 제9항 붙임2).⁴⁾ 이때 기술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되는데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림쟁이’나 “칼을 갈아 주고 샅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도(刀)쟁이’ 등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⁵⁾ 표준어 규정 당시에도 이미 ‘-쟁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쟁이’를 택했을 때 비어적 느낌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3) 표준어 규정과 달리 ‘미장이’는 사전들에서 ‘미장+이’로 분석되고 있다. 표준어 규정 해설의 ‘미장(泥匠)’은 ‘장’을 ‘이장(泥匠)’의 ‘장’에 일치시킨 듯하나, 그렇다고 이를 ‘미장+이’에서 ‘미+장이’로의 재구조화로 다루자면, 이번에는 ‘미’의 형태론적 자격이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또 ‘미장’은 ‘이장(泥匠 “미장이”)’과 달리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이나 회, 시멘트 따위를 바름.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미장이’ ‘이장(泥匠)’의 중국어 발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홍윤표 2005, 조항범 2009: 98) ‘미장’과 ‘이장’의 의미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4) 표준어 규정에는 ‘-쟁이’ 결합형들에 동식물, 사물 등 사람과 관련 없는 다양한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본 논의는 사람을 가리키는 ‘-장이/-쟁이’ 파생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예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5) 김희진(1990: 69-70)에서는 국어심의회에서 ‘기술자’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했다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젓물을 내리는 일’ 또는 ‘닭이질’이나 ‘곡식을 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젓물장이, 닭이장이, 말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있어 질충안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김희진 1990: 70).

표준어 규정을 떠나 ‘-장이/-쟁이’의 변화 과정은 송철의(1992), 정민영(2005), 권순구(2010)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장이’의 ‘장’은 “장인(匠人)”을 의미하는 ‘장(匠)’에서 온 것으로 ‘칠장(漆匠), 조각장(彫刻匠), 석장(石匠)’ 등에서 이미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 ‘거북이, 부엉이’ 등의 고유어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접미사 ‘-장이’가 형성되어 ‘칠+장이, 조각+장이’로 분석된다는 것이다(송철의 1992: 169-171).⁶⁾

정민영(2005)에서 ‘-장이/-쟁이’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는데, 한자어 어근이 국어화하면서 형태, 기능, 의미가 모두 변한 예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⁷⁾ 한자어 어근 ‘장(匠)’이 처음에는 ‘간판장, 도채(塗彩)장, 칠장’ 등 한자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쓰여 “장인”이라는 어휘 의미를 지닌다. 이 합성어에 고유어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한자 혼종 파생어를 형성하게 된다. ‘-이’가 결합함으로써 음조를 고르고 명사로서의 형태상 안정성을 획득하면서 국어화한다. 여기서 ‘장’은 접미사처럼 후접되고 그 의존성과 형태적 불안정성 때문에 ‘간판+ 장이’로 재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이’는 통시적으로 ‘한자어 어근+이’의 구조이지만 공시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로 어휘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문법 단위로 바뀌게 된다. 본래 기술자를 뜻하던 ‘-장이’는 그 쓰임이 일반화되면서 ‘난장이’처럼 어떤 모양이나 특성을 갖춘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장이’가 ‘장(匠)’의 의미에서 멀어지면서 일반화되어 ‘-쟁이’의 형태로 쓰이는 예로 ‘가살쟁이, 거짓말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등을 들고 있다. 의미상 일반화된 접미사는 그 이

6) 이에 앞서 조남호(1988: 37-38)에서는 ‘-장이’의 기원을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毛衣匠, 毛衣匠이’처럼 ‘匠’에서 온 것으로, 다른 하나는 ‘山尺, 山장이’와 같은 ‘尺’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尺’은 15세기에 ‘장’으로 나타나는데(이기문 1968: 222) ‘장→장이’가 된 것으로 본다. 신라시대 구실아치의 명칭인 ‘歌尺, 舞尺’이 국어사전에 ‘노래자이, 춤자이’로 올라 있는데, ‘노래자이’가 후에 ‘노래장이(歌手)’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원이 다르더라도 현대국어의 ‘-장이’를 둘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匠’에서 온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7) 정민영(2005)에서는 ‘-장이/-쟁이’와 함께 ‘-동이/-둥이, -지기’ 등의 국어 접미사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전에 비하여 결합될 수 있는 어기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최근 ‘마누라쟁이, 중풍쟁이’와 같은 신조어에도 나타난다.

권순구(2010: 11-14)에서는 ‘-장이’ 재구조화 과정의 첫 단계로 ‘조각+장인(匠人)→조각장과 같은 ‘단축 어휘 형성’ 과정을 상정하였다. 한자어는 단축 어휘 형성이 매우 일반적이어서 ‘장인(匠人)→장(匠)’으로의 단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접미사 ‘-장이/-쟁이’의 의미를 ‘장(匠)’과의 유연성과 낮춤 의미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유형인 ‘미장이, 토기장이’ 등은 ‘기술자, 직업인’의 의미를, 제2유형인 ‘글쟁이, 점쟁이’ 등은 ‘기술자, 직업인, 부정적 인식’의 격하된 의미를 지닌다. 제3유형인 ‘옴쟁이, 겁쟁이’ 등에는 ‘속성인, 부정적 인식’의 의미가 있고, 제4유형인 ‘개구쟁이, 멧쟁이’ 등에는 ‘속성인’의 의미만 있다는 것이다. ‘-장이/-쟁이’의 의미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참고하여 ‘-장이/-쟁이’의 어기에 따른 변화 과정과 그 예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 [X-장(匠)-이] > X[-장이] > X[-쟁이]
- 나. [조각-장(匠)-이] > 조각[-장이]
- 다. 그림[-장이] > 그림[-쟁이]
- 라. 거짓말[-장이] > 거짓말[-쟁이] / 무식[-장이]⁸⁾ > 무식[-쟁이]
- 마. 매듭[-쟁이] / 뜨개[-쟁이]

(1가)는 ‘[X-장-이]’가 ‘X[-장이]’로 재분석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1나-마)는 각 단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는지 해당 예를 제시하였

8) ‘무식장이’는 ‘그림장이’와 함께 1900년대 초반 자료에 등장한다.

〈예〉 가. 그 친구 얹혀 잇는 붓슬 들어 거림 거린 거슬 호리니 그림장이 대경실색하야 급히 다라드려 말하니 그 친구 그 연유로 다 말하고 《신학월보 권3:328》(1903)
 나. 갓흔 디관으로 아시오 여보 나는 본릭 낫 낫코 기억즈도 모로는 무식장이라 답산가 혼구절 외오지 못호오 여보 덕이 잘못 츠즈 계신가보오 《구마검 050》(1908)

다. (1나)는 합성어 ‘조각장’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조각장+이’가 ‘조각+장’이로 재분석 과정을 거쳐 접미사 ‘-장이’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1다)는 ‘-장이’로 재분석된 접미사가 ‘그림’에 결합되어 ‘-쟁이’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1다)의 과정에는 (1나)와 달리 “그림장”이라는 합성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즉 재구조화된 ‘-장이’가 직접 결합하여 ‘-쟁이’가 된다. 이에 비해 (1라)는 ‘-장이’의 어기가 확대되고 의미가 추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추상명사 어기나 상태성을 지닌 어기에 결합하여 반복되는 행위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 (1마)는 최근 신어에서 ‘-장이’로 써야 할 예들도 ‘-쟁이’로 형태가 통일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⁹⁾

본래 ‘-장이’는 ‘조각장이’에서처럼 “어떤 기술을 가진 전문 직업인” 정도의 의미를 뜻하는데, 그 쓰임이 일반화되면서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그림쟁이) 또는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거짓말쟁이),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무식쟁이, 꼼꼼쟁이) 정도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이’가 ‘장(匠)’의 의미에서 멀어지면서 일반화된 의미이고¹⁰⁾ 이에 따라 형태도 ‘-쟁이’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어기와 접미사 ‘-장이/-쟁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파생어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X+장이’ 결합형과 ‘X+쟁이’ 결합형으로 나누고 다시 어기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기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 따라 ‘-장이’ > ‘-쟁이’의 변화 과정을 겪은 예들도 ‘-쟁이’ 결합형들은 ‘-장이’와 달리 부정적 의미 속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¹¹⁾

9)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문에서 다룰 것이며, (1마)의 예들은 5장에서 다루어진다.

10) 이지양(2003: 217)에서는 ‘개-, 맛-, -보, -장이’ 등의 파생접사들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문법화에서와 유사한 의미의 약화 내지 추상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미의 약화가 문법화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문법화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11) 3장과 4장에 제시하는 예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장이/-쟁이’ 결합형을 검색하여 식물명이나 사물명 등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 예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를 분류한 것이다.

3. ‘X+장이’ 파생어

사전에 ‘-장이’형이 표준어로 등재된 단어들을 어기와 접미사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어기X가 물건, 행위, 재료, 장소 등 다양하며 어휘 부류에 따라 접미사와의 의미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 (2) 가. 가구장이, 궁(弓)장이, 낫갓(낫그릇)장이, 낫대장이, 낫것장이, 옹기장이, 우산장이, 유기(柳器)장이, 의자장이, 장(櫛)장이, 토기(土器)장이, 간판장이, 풍물(風物)장이, 관곽(棺槨)장이, 기와장이, 벽돌장이, 솔장이
나. 감투장이, 갓장이, 망건장이, 발장이, 삿갓장이, 쟁장이, 짚신장이, 양복장이, 시계장이, 구두장이; 족(足)장이¹²⁾
- (3) 가. 가칠(假漆)장이, 도채(塗彩)장이, 도배장이, 앙토(仰土)장이, 칠장이, 땀장이, 도련(搗鍊)장이, 도림장이, 마전장이,¹³⁾ 마조(磨造)장이,¹⁴⁾ 조각장이, 석각(石刻)장이, 조궁(造弓)장이, 조선(造船)장이
나. 단청장이, 이엉장이, 토담장이, 통(桶)장이¹⁵⁾

(2가)의 예는 “어기X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로 어기X는 만드는 구체적인 대상인 물건이 된다. 따라서 X-장은 ‘가구, 낫갓, 궁, 옹기’ 등을 만드는 기술을 지녀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2나)도 어기가 만드는 대상이고 구체적인 물건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람이 쓰거나 입을 수 있는 신체 착용물이라는 점에서 따로 구별하였다. 즉 (2)의 예들은 X-장의 어기X가 만드는 대상인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3가)의 예들은 “어기X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여 어기X가

12) ‘제화공’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족(足)’이 사물은 아니지만 편의상 여기에 제시하기로 한다.

13) ‘마전’은 “생피륙을 삶거나 빨아 별에 바래는 일”이다.

14) “도자기를 굽기 전에 이리저리 매만지어 땀시를 내는 사람”

15) “통(桶)을 메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둥근 물체에 테를 끼워 통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행위”를 의미한다. 즉 x-장이는 ‘가칠, 도채, 도배, 양토, 칠, 뽐, 도림, 조각’ 등의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이다. 이에 비해 (3나)의 예는 (3가)와 유사하지만 단순히 어기가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x-장은 ‘단청, 이엉, 토담, 통’ 등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즉 “x와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닌다.

(4) 구리장이, 금장이, 납장이, 돌장이(‘석수’), 소목(小木)장이, 옥(玉)장이, 은장이, 피(皮)장이, 함석장이(‘함석공’)

(5) 궁방(弓房)장이, 낯점(-占)장이

(6) 대장장이¹⁶⁾=대장, 각수(刻手)장이=각수(刻手),¹⁷⁾ 석수(石手)장이=석수(石手), 야장(冶匠)장이=야장¹⁸⁾

(4)의 예들은 어기x가 구체물로 “재료”가 되는 부류이다. 이때의 x-장은 어기인 ‘구리, 금, 납, 돌, 소목, 옥’ 등의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따라서 ‘x-장이’는 “선행 어기x를 이용하여 특정 물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 “어기x를 재료로 무엇가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의 ‘궁방장이, 낯점장이’에서 ‘궁방’은 “활을 만드는 장소”이고, ‘낯점’은 “낯그릇을 만드는 공장”이므로 어기x가 “장소”를 의미한다. 장소 명사에 ‘장이’가 결합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물건을 직업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소 명사가 생산물을 의미하는 것은 환유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예들은 (2가)에 속하는 ‘궁장이’이나 ‘낯갓장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궁, 낯갓’은 이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다. 즉 만드는 대상을 어기로 취하는 예와 그 것을 만드는 장소를 어기로 취하는 예가 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6)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대장, 대장공’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17) “나무나 돌 따위에 조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8)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6)의 예들은 ‘-장이’가 결합되기 전의 어기 ‘대장, 각수(刻手), 석수(石手)’가 이미 ‘장이’ 결합형인 ‘대장장이, 각수장이, 석수장이’와 동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대장, 각수, 석수’ 자체가 이미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장이’가 결합한 예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동의중복으로 해석된다. 동의중복은 주로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동일한 뜻을 지닌 요소가 중복 결합한다.¹⁹⁾

이상에서 ‘-장이’가 결합한 예들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기술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 예는 ‘장(匠)’이 지닌 원 의미인 “장인(匠人)”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이’ 결합형의 어기 부류에 따른 의미 관계와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이’ 결합형 어기와 접사의 의미 관계

어기X	파생어의 추가 의미	예	접미사 ‘-장이’
구체물(대상) ²⁰⁾	“X를 만드는”	가구장이, 감투장이	기술자, 직업인
행위	“X하는 행위를 하는”	가칠장이, 도채장이	기술자, 직업인
구체물(재료)	“X를 재료로 물건을 만드는”	구리장이, 금장이	기술자, 직업인
장소	“X에서 특정 물건을 만드는”	궁방장이, 돛점장이	기술자, 직업인
인간	없음	대장장이, 석수장이	기술자, 직업인

4. ‘X+-쟁이’ 파생어

‘-쟁이’ 결합형이 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는 예들을 파생어와 접미사의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쟁이’ 파생어가 지닌 [직업], [비하], [습관적 행위], [사람의 특성] 등의 의미 자질에 따라 절을 나누어 부류별로 살펴보자.

19) 동의중복에 대해서는 노명희(2006, 2009) 참조.

20) 어기의 어휘 부류는 세종전자사전의 의미 부류 체계를 참고하였으며(홍재성 2003: 118-120), () 안은 어기와 접사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4.1. ‘그림쟁이’류 : [직업] [비해]

이 절에서 제시하는 예는 ‘-장이’와 의미상 관련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좀 더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즉 ‘-장이’와 ‘-쟁이’ 결합형들은 둘다 “-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규범 표기의 기준으로 ‘-장이’에는 ‘기술자’라는 의미가 포함되나 ‘-쟁이’에는 ‘기술자’의 의미보다 ‘직업’과 ‘비하’의 의미가 강하다. 예를 들어 ‘만담쟁이’의 경우 ‘만담가’나 ‘만담꾼’과 비교했을 때 “낮잡아 이르는”의 의미가 추가된다. ‘만담가’보다 ‘만담꾼’이 더 낮춤말로 인식되고 ‘만담쟁이’는 ‘만담꾼’보다 좀 더 비하하는 의미가 추가되는 듯하다. 이에 이 부류의 예들은 [직업]과 [비하]의 의미 자질을 둘 다 갖는다.

(7) 가. 그림쟁이, 글쟁이, 글폼쟁이, 경(經)쟁이,²¹⁾ 노래쟁이, 마술쟁이, 만담쟁이, 소리쟁이, 소설쟁이, 솟대쟁이, 신문쟁이(‘신문인’),²²⁾ 야담(野談)쟁이, 연극쟁이, 웅변쟁이(‘웅변가’), 풍각(風角)쟁이,²³⁾ 화쟁이(‘화가’)

나. 관상쟁이, 별점(占)쟁이, 복술(卜術)쟁이, 사주(四柱)쟁이, 상쟁이, 관상쟁이, 손금쟁이, 음양(陰陽)쟁이(‘음양가’), 점쟁이, 파자(破字)쟁이, 풍수쟁이,²⁴⁾ 해자(解字)쟁이,²⁵⁾ 화주역(花周易)쟁이

(8) 닻이쟁이, 대서(代書)쟁이, 도부(到付)쟁이, 마쟁이,²⁶⁾ 미두(米豆)쟁이,²⁷⁾ 이발쟁이(‘이발사’), 일수(日收)쟁이, 중매쟁이(‘중매인’)

21)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경(經)을 읽어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2) 괄호 안에는 ‘쟁이’ 파생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있으면 제시하기로 한다. 주로 ‘쟁이’ 파생어보다 낮춤의 의미가 없는 한자어의 예가 많다.

23) “시장이나 집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

24) “지관(地官)을 속되게 이르는 말”

25)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하여 길흉을 점치는 사람”

26) “마질을 해주는 사람”

27) “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7가)의 ‘그림쟁이, 글쟁이, 노래쟁이’ 등은 “어기X의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의미를 갖는다. (7나)의 예는 점술이나 사주, 관상 등과 관련된 단어를 어기로 취한 예들로, “어기X를 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7)의 예들은 어기X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림’을 그리거나, ‘관상’을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어기에 따라 선택되는 서술어가 달라질 뿐이다.

이에 비해 (8)은 어기X 자체가 이미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이다. 어기 ‘닭이, 대서(代書), 도부(到付),²⁸⁾ 이발, 중매’ 등이 결합한 ‘X-쟁이’는 “닭이질, 대서, 도부 등의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4.2. ‘거짓말쟁이’류 : [습관적 행위]

여기에 속하는 예들은 직업이나 비하의 의미보다 특정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쟁이’가 지닌 ‘직업’이라는 의미가 추상화되어 습관적 행위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어기X가 추상명사이거나 서술성을 지닌 명사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어기 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접미사나 서술어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가. [하대] 거짓말쟁이, 고자질쟁이(=고자쟁이), 이야기쟁이, 잔말쟁이, 욱쟁이, 싸움쟁이
- 나. [부리다/피우대] 어리광쟁이, 엄살쟁이, 양탈쟁이, 웅고집쟁이, 황고집쟁이, 외고집쟁이, 난봉쟁이, 말썽쟁이, 거드름쟁이, 게으름쟁이, 고집쟁이
- 다. [부리다] 주정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용심쟁이,²⁹⁾ 투정쟁이, 떤쟁이, 요술쟁이, 신경질쟁이, 피병쟁이, 몽니쟁이, 변덕쟁이
- 라. [피우대] 바람쟁이

28) “장사치가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훔”

29) “남을 시기하는 심술을 많이 부리는 사람”

마. [떨다] 아침쟁이, 수다쟁이, 내숭쟁이, 재롱쟁이, 허풍쟁이, 도삽³⁰⁾쟁이, 익살쟁이
 바. [잡다] 트집쟁이
 사. [내다] 흉내쟁이
 아. [자다] 늦잠쟁이
 자. [대다/거리다] 뒤흔쟁이, 꼴록쟁이

(9)는 여기X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X-쟁이’는 ‘거짓말, 고자질, 어리광, 거드름, 아침’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다. (9가)는 ‘하다’ 결합이 가능한 예들로 “거짓말/고자질/욕을 잘 하는 사람”이고, (9나)는 ‘부리다’와 ‘피우다’를 모두 서술어로 취할 수 있는 명사로 “어리광/엄살/말썽/변덕을 잘 부리는/피우는 사람”이다. (9다)는 ‘부리다’를 취하는 명사로 “투정/뽀니를 부리는 사람”, (9라)는 ‘피우다’와 결합하는 명사이다.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이 부류의 예들에는 ‘피우다’나 ‘부리다’와 결합 가능한 어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마)는 ‘떨다’가 결합하여 “아침/수다를 잘 떠는 사람”, (9바)는 ‘잡다’와 결합하여 “트집을 잘 잡는 사람” 등의 의미를 지닌다. (9사)는 ‘내다’와 결합하여 “흉내를 잘 내는 사람”, (9아)는 “늦게까지 자는 사람”이다. (9자)는 여기X가 ‘대다/거리다’와 결합 가능한 예로 의성의태어 어기 ‘뒤흔, 꼴록’ 등이 해당된다. ‘대다/거리다’는 접미사 자체에 이미 반복의 의미가 있어 “뒤흔거리리는 사람, 꼴록거리리는 사람”의 의미를 지닌다. (9)에서 보인 예들의 공통점은 어기의 행위를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결합하는 서술어가 모두 적극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행위를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들 예는 대부분 ‘비하’의 의미가 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짓말쟁이, 고집쟁이, 게으름쟁이’ 등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습성이나 태도가 게으른 사람”의 의미로 ‘쟁이’가 결합함으로써 비하하는 의미가 첨가되

30) “주책없이 능청맞고 수선스럽게 변덕을 부리는 것”의 뜻으로, ‘도삽을 떨다’로 쓰인다.

지는 않는 듯하다. 특히 ‘게으름쟁이, 주정쟁이’에 대한 낮춤말로 ‘게으름뱅이, 주정뱅이’와 같은 ‘-뱅이’ 형태가 있어 ‘-쟁이’ 형은 비하의 의미를 덜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아침쟁이, 싸움쟁이’ 등 일부 예는 “낮잡아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침꾼, 싸움꾼’처럼 접미사 ‘-꾼’ 결합이 가능한 예들이다. 이는 ‘-쟁이’ 결합형이 ‘-꾼’ 결합형보다는 더 낮추는 의미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부류는 기본적으로 ‘아침, 싸움, 주정, 몽니, 트집’ 등 어기 자체가 이미 부정적 속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생어의 의미도 부정적 의미를 갖지만 ‘-쟁이’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위의 예 중 ‘요술쟁이’만 어기의 의미가 부정적이지 않은 듯하다. 이 외에 ‘심술쟁이, 욕심쟁이, 늦잠쟁이, 엄살쟁이’ 등은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 늦잠꾸러기, 엄살꾸러기’ 등 접미사 ‘-꾸러기’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³¹⁾

4.3. ‘무식쟁이’류 : [사람의 특성]비해

이 부류에는 어기가 상태성을 지니거나 사람의 성질을 표현하는 등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들이 속한다. ‘무식쟁이, 봉급쟁이, 갓쟁이, 동학쟁이’ 등의 예들에서 보듯이 어기가 그 사람을 특징 지어 특성화하고 ‘-쟁이’가 결합하면서 비하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먼저 선행 어기가 ‘하다’나 ‘스럽다’ 등과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는 예들을 보자. 이들 예는 어기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10) 가. [하다] 고지식쟁이, 미웁쟁이, 완고쟁이, 앙상쟁이 ; 무식쟁이, 유식쟁이, 매련쟁이, 미련쟁이

나. [스럽다]³²⁾ 극성쟁이, 가살쟁이, 간살쟁이, 수선쟁이, 야발쟁이, 야살

31) ‘-꾸러기’는 아이를 대상으로 많이 쓰는 듯하다. 여기서는 ‘-쟁이’와 ‘-꾸러기, -꾼, -뱅이’ 등 유사 접미사와의 관계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쟁이,³³⁾ 게걸쟁이, 험상쟁이³⁴⁾

다. [이다 구식쟁이, 깜깜무식쟁이

라. [많다/세대 부끄럼쟁이, 의심쟁이, 여드름쟁이, 겁쟁이, 힘쟁이

(10가)는 ‘고지식하다, 미웁하다, 무식하다’의 어기 ‘고지식, 미웁, 무식’ 등에 ‘-쟁이’가 결합한 예로 어기가 상태성을 지닌다. 앞에 제시된 ‘고지식, 미웁, 완고, 앙상’은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는 예들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root)의³⁵⁾ 자격만 지닌다. 이에 비해 ‘무식, 유식, 미련’은 상태성을 띠는 자립명사의 자격을 지닌다. 이들도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다. (10나)는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 가능한 예들로 ‘익살스러운 사람, 극성스러운 사람, 가sal스러운 사람’ 등 상태성의 의미와 관련된다. (10다)는 “구식인 사람, 깜깜무식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서술격조사 ‘이다’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들 예는 상태성을 지니면서 사람의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 (10라)는 ‘부끄럼, 의심, 겁’ 등 어기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의미로 ‘x-쟁이’는 “x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정도로 해석된다. 또 ‘힘이 센 사람’과 같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도 사람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부류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을 듯하다. (10)의 예들에는 ‘무식쟁이, 야살쟁이, 구식쟁이’ 등 대부분 ‘비하’의 의미가 부가된다. 다만 ‘부끄럼쟁이, 겁쟁이, 힘쟁이’ 등 일부는 ‘비하’의 의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예들이다.

다음은 사람의 성격 및 성질과 관련된 단어들로 이 부류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하’의 의미도 갖는다.

(11) 가. 꼼꼼쟁이, 꼼꼼쟁이, 만만쟁이, 튼튼쟁이

32) 여기서는 접미사의 경우도 편의상 의존형식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33) “보기에 알망긔고 되바라진 데가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34) ‘험상’의 경우 사전에는 ‘험상하다, 험상스럽다, 험상궂다’가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험상궂다’가 가장 자연스럽지만 ‘험상스럽다’도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다룬다.

35) 본고에서 사용하는 어근(root), 어기(base) 개념은 이익섭(1975)에 따른다.

나. 실없쟁이, 열없쟁이, 싱겁쟁이

(11가)는 ‘꼼꼼, 꼼꼼’ 등의 반복어근에 ‘-쟁이’가 결합한 예들이다. 이들 어기는 ‘꼼꼼하다, 꼼꼼하다, 만만하다’와 같이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다. (11나)의 ‘실없쟁이, 열없쟁이’는 ‘실없다, 열없다’의 어간에 ‘-쟁이’가 직접 결합하여 비생산적인 단어형성 방식을 보인다. ‘싱겁’은 형용사 ‘싱겁다’의 명사형에 ‘-쟁이’가 결합한 예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들 예에서 X-쟁이는 “X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의미가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물에 ‘-쟁이’가 결합한 예들이다. 이들도 여기가 사람의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12) 가. 갓쟁이, 망건쟁이, 방갓쟁이, 삿갓쟁이, 상투쟁이, 탕건쟁이, 감투쟁이, 복두쟁이,³⁶⁾ 안경쟁이, 양복쟁이

나. 대갈쟁이, 배꼽쟁이, 코쟁이, 콧벽쟁이, 콧수염쟁이

(12가)는 사람이 쓰거나 입을 수 있는 물건과 관련된 예시이다. ‘갓, 망건, 복두’ 등은 머리에 쓰는 물건들이다. ‘X-쟁이’는 여기X를 착용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 예는, 앞의 (2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갓장이, 망건장이’와 같이 ‘-장이’ 형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갓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의 의미로 쓰인다. (12나)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에 ‘-쟁이’가 결합한 예들인데, 여기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 예는 외적인 요소가 그 사람을 특징 짓는다.

다음 파생어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된다. 여기 명사 ‘월급, 일급’ 등으로 인해 그 사람의 속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부류에 포함된다.

(13) 월급쟁이, 일급(日給)쟁이, 봉급쟁이, 일공(日工)쟁이; 세도쟁이

36) “과거에 급제하여 복두(幞頭)를 쓴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

(13)의 예에서 어기 ‘월급, 일급’ 등이 “급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월/일 단위로 급료를 받는 방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들 어기는 추상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듯하다.³⁷⁾ ‘세도쟁이’도 “정치상의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어기가 추상적 대상이 된다. 또 (13)의 예는 ‘우리 같은 봉급쟁이가 어디 힘이 있어야 말이지’와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급생활자’보다 비하의 의미를 포함한다.

다음 예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특정 종교나 병명을 어기로 취한다.

(14) 가. 동학쟁이, 예수쟁이, 천주학쟁이, 천좌쟁이³⁸⁾

나. 매독쟁이, 병쟁이, 속병쟁이, 염병쟁이, 움쟁이, 지랄쟁이, 찰담쟁이,³⁹⁾ 폐병쟁이, 담(痰)쟁이⁴⁰⁾

(14가)는 종교를 나타내는 명사에 ‘쟁이’가 결합한 예들이다. ‘동학도, 기독교 신자, 가톨릭교도’를 속되게 또는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4나)는 ‘매독, 염병’과 같은 병명을 나타내는 어기에 ‘쟁이’가 결합한 예이다. 어기X의 병을 앓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이다. ‘종교’와 ‘병명’은 둘다 추상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⁴¹⁾ 이들 예도 모두 어기가 사람의 특성을 결정 짓는 요소이며 파생어가 비하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 다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쟁이’ 결합형은 어기가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어기의 종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7) 세종 전자사전의 의미 부류에 따르면 ‘세금, 비용, 소득’ 등 금전과 관련된 단어들은 추상적 대상에 포함된다.

38) “가톨릭교도를 낮잡아 이르는 말”

39) “고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심한 매독에 걸린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40) “담병을 앓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41) 세종 전자사전에서는 ‘질병 및 중세’를 ‘상태’의 하위 부류에 포함시켰으나 여기서는 병명이므로 추상적 대상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표 2〉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기 부류⁴²⁾

어기X	예	어기X	예
상태	무식쟁이	추상적 대상(금전)	월급쟁이
성질	꼼꼼쟁이	추상적 대상(종교)	동학쟁이
구체물(신체착용물)	갓쟁이	추상적 대상(명명)	매독쟁이
구체물(신체부위)	코쟁이		

4.4. ‘영감쟁이’류 : [비하] 또는 [친밀 지칭]

다음은 ‘쟁이’가 주로 ‘비하’ 또는 ‘친밀 지칭’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위의 예들과 구별할 수 있을 듯하다. 경우에 따라 비하보다 친밀 지칭의 기능을 보이는 예들이 있어 흥미롭다.

- (15) 마누라쟁이, 노파(老婆)쟁이, 비부(婢夫)⁴³⁾쟁이, 신랑쟁이, 영감쟁이, 첩쟁이, 할미쟁이, 울보쟁이

이 예들의 특징은 어기가 이미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마누라’와 ‘마누라쟁이’, ‘노파’와 ‘노파쟁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X-쟁이’는 “X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 다른 예들과 달리 ‘쟁이’가 결합되기 전의 어기 자체가 이미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고 ‘쟁이’ 결합형이 비하의 의미만 첨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울보’와 ‘울보쟁이’도 지시 대상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부류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영감쟁이, 마누라쟁이’가 ‘영감, 마누라’를 단순히 비하하는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42)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세종 전자사전의 어휘 부류에 따르면 어기가 대체로 ‘상태’나 ‘추상적 대상’에 속한다. 다만 ‘갓, 코’ 등은 ‘구체인공물, 신체부위’와 같은 구체물의 하위부류에 속한다.

43) “계집종의 남편”

- (16) 가. 그놈의 영감쟁이도 딱한 늙은이지, 마누라 나이보다도 더 먹었다는 데... 《염상섭, 동서》
 나. 마누라쟁이의 쫄알대는 소리가 영 듣기 싫다. / 때때로 이쁜 짓 하는 울 마누라쟁이

위의 예가 ‘영감, 마누라’를 낮추는 의미를 어느 정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남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 같은 영감쟁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와 같은 문맥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양’의 의미도 포함된다. 이 부류는 친밀한 사이일 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친밀 지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⁴⁴⁾

이들 예는 앞에서 다룬 ‘-장이’ 결합형 중에 ‘대장장이, 각수장이, 석수장이, 야장장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장’과 ‘대장장이’, ‘석수’와 ‘석수장이’도 여기와 ‘-장이’ 결합형이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만 ‘-장이’ 결합형은 ‘비하’의 의미를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장장이’류와 동일하게 여기와 파생어의 지시적 의미 관계가 같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류에 속한다.

4.5. 기타

다음은 ‘쟁이’가 결합해도 ‘비하’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예들이다.

- (17) 갓난쟁이, 돌쟁이, 개구쟁이, 깍쟁이, 멋쟁이, 난쟁이

위의 예들은 “갓난아이, 첫돌이 된 아이, 깃꺾게 장난을 하는 아이”의 의미를 지닌다. ‘갓난쟁이’는 사전에 “갓난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44) (15)의 모든 예가 친밀 지칭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부쟁이, 첩쟁이’ 등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어 일부 예에서 생긴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만들어진 ‘센스쟁이, 끼쟁이’ 등도 친근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5장 참조.

있으나 ‘비하’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갓난아이’의 ‘아이’ 대신 ‘쟁이’를 결합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돌쟁이’에서도 ‘아이’ 대신 ‘쟁이’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예들에서는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깍쟁이, 멋쟁이’ 등에도 비하의 의미는 부가되지 않는 듯하다.

‘난쟁이’의 경우 ‘난장이>난쟁이’로 변화되었으나 원래 ‘난장이’가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므로 ‘쟁이’가 결합하여 비하의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최근 조어진 ‘쟁이’ 파생어

여기서는 《우리말샘》에 등록된 ‘장이/-쟁이’ 파생어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장이/-쟁이’ 파생어를 비교한다. 《우리말샘》에는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예들 가운데 출처가 2000년대 이후인 예들을 분석하여 ‘쟁이’ 결합형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⁴⁵⁾

먼저 김일환(2014: 165)에서 제시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주요 일간지 기사로 구성된 <물결21>코퍼스에서 ‘장이/-쟁이’가 결합한 사전 미등재어를 살펴보자. 신어 어기로 고유어 29개, 한자어 12개, 영어 2개가 발견되어 어기로 고유어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행 어기와 결합하여 비하의 의미를 갖는 명사를 형성한다. 참고로 김일환(2014)의 예를 《우리말샘》등재 여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 (18) 가. 광고쟁이, 숯쟁이, 센스쟁이, 방송쟁이, 기름쟁이, 뽕쟁이, 약쟁이,
칼끔쟁이, 방구쟁이, 아부쟁이, 곡쟁이, 구라쟁이, 깨북쟁이, 소심쟁

45) ‘장이’ 결합형의 예로는 ‘건축장이, 기술장이, 댕이장이’ 등 세 개가 발견된다. 이 중 ‘댕이장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미 ‘댕이쟁이’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장이, 기술장이’의 경우도 ‘장이’로 쓰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러운 예들로 판단된다.

이, 참견쟁이, 고물쟁이, 노름쟁이, 애교쟁이, 옷쟁이(19개)

나. 책쟁이, 생각쟁이, 정치쟁이, 꿈쟁이. 옷칠쟁이, 걸구쟁이, 굿쟁이, 무섬쟁이, 옷장이, 반풍쟁이, 괴각쟁이, 꽃쟁이, 놀기쟁이, 따통쟁이 (“아편 중독자”), 땀쟁이, 떡물쟁이, 반말쟁이, 뿔쟁이, 서학쟁이, 식탐쟁이, 자개쟁이, 장구쟁이, 철물쟁이, 허영쟁이(24개)

(18가)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고, (18나)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예들이다. 《우리말샘》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예들은 좀 더 최근의 신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총 33개의 예 가운데 ‘장이’ 결합형은 ‘옷장이’ 하나이다. 요즘에는 손과 관련된 기술자가 거의 없으므로 신어에 ‘장이’를 결합할 만한 어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칠장이’가 규범표기인데 ‘옷칠쟁이’로 신어를 만들고 ‘자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라면 ‘자개장이’로 쓸 만하나 ‘자개쟁이’를 만들어 썼다. 이것은 ‘장이’와 ‘쟁이’를 구분하지 않고 ‘-쟁이’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예들을 살펴보자.⁴⁶⁾

(19) 가. 고물쟁이(‘고물장수’), 건축쟁이(‘건축가’), 광고쟁이(‘광고인’), 권투쟁이(‘권투선수’), 드라마쟁이, 떡쟁이(‘떡장수’), 만화쟁이(‘만화가’), 미술쟁이(‘미술가’), 바둑쟁이(‘바둑인’), 방송쟁이(‘방송인’), 빵쟁이(‘제빵사’), 사무쟁이(‘사무가’), 사복쟁이(‘사복경찰’), 사진쟁이(‘사진사/사진작가’), 세금쟁이(‘세무공무원/세무사’), 야구쟁이(‘야구인’), 연기쟁이(‘연기자’), 영화쟁이(‘영화인’), 옷쟁이, 음식쟁이, 전산쟁이, 희극쟁이(‘희극배우’), 여행쟁이(‘여행가’), 컴퓨터쟁이

46) 일부 예는 김일환(2014)의 예와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대로 제시하는 것도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지 않고 제시한다.

나. 춤쟁이, 커피쟁이, 축구쟁이

최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예들 가운데 많은 수의 단어가 “전문적인 직업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가)의 예를 보면 대부분 이미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를 발생시킨다. ‘고물쟁이, 건축쟁이’는 ‘고물장수, 건축가’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데 신어를 만든 것이다. (19나)의 예들은 전문적으로 하거나 좋아하지만 반드시 “직업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춤쟁이’는 “춤을 좋아하고 춤 실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꼭 춤 관련 일을 직업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커피쟁이’도 커피 관련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커피를 좋아하여 즐겨 마시거나 그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몇몇 예를 가져와 그 의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가)의 일부 예를 보자.

- (20) 가. 고물쟁이: ‘고물 장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이곳 주인 000 씨는 북촌 일대에서 ‘고물쟁이’로 유명하다. 《주간동아 2007년 5월》
- 나. 만화쟁이: ‘만화가’를 낮잡아 이르는 말. 〈예〉 만화 가게집 아들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만화에 몰혀 살아 운명적으로 만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타고난 만화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뉴시스 2013년 5월》
- 다. 광고쟁이: 광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는 광고쟁이가 좋아 광고 회사를 택했다는 그는 지기를 싫어하는 여성이다. 《한국경제 2000년 2월》

(20)의 ‘고물쟁이, 만화쟁이, 광고쟁이’는 이미 있는 단어인 ‘고물장수, 만화가, 광고인’ 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쟁이’ 결합형을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예가 주로 ‘직업인’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단순한 직업인의 의미보다 그 일에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추가적 의미를 반영하는 듯하다.⁴⁷⁾

(21) 가. 올해 나이 칠순의 000 화가는 물과 붓, 물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다고 외치는 영락없는 ‘미술쟁이’이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 6월》

나. 호텔에 방을 잡아 놓고 가족들이 해수욕장에서 노는 동안 이 못 말릴 바둑쟁이들은 방구석에 처박힌 채 2박 3일 동안 주야장천 바둑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2008년 12월》

(21)의 예문들에서도 ‘미술쟁이’나 ‘바둑쟁이’의 쓰임은 ‘미술가’나 ‘바둑인’을 단순히 비하하는 의미라기보다 열정이나 몰두하는 행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어기와 결합해서 ‘-쟁이’는 [비하]의 의미와 그 일에 몰두하는 [열정]의 의미를 추가한다. 다음 예들은 이러한 [열정]의 의미만 표현하고 직업이 아닌 경우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가. 춤쟁이: 춤을 좋아하고 춤 실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예〉 스스로를 춤쟁이로 묘사할 만큼 그는 원래부터 댄스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었다. 《스포츠경향 2011년 2월》

나. 커피쟁이: 커피를 좋아하여 즐겨 마시거나 그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000 대표는 ‘커피쟁이’다. 칙칙한 다방 외에는 커피 문화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커피에 인생을 걸었다. 《매일신문 2014년 4월》

다. 축구쟁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실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예〉 (생략) 중간을 넘어가려는데 축구쟁이 초등생 두 명이 나타난다. (중략) 축구에 몰두하는 이 친구들에게서 ‘열정’이 느껴진다. 《축구쟁이 초등생을 보며 2019년 8월》

47) 이러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는 있을 듯하다. 즉 경우에 따라 ‘직업’이면서 ‘열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열정’보다 ‘비하’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을 듯하다.

(22)의 예는 사전 뜻풀이에도 직업인의 의미가 없고 [열정]이나 [뛰어남] 정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춤쟁이, 커피쟁이, 축구쟁이’라는 신어가 특히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는 듯한 문맥에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직업’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열정]이나 [몰두]의 의미 자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예들은 ‘직업’이나 ‘전문인’과 관련없이 ‘습관적인 행위’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어들이다. 여기서도 어기와 결합 가능한 용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23) 가. [하다] 게임쟁이, 공부쟁이, 내기쟁이, 따라쟁이, 마약쟁이, 뽕쟁이,
술쟁이, 슷쟁이, 약쟁이, 자랑쟁이, 잔소리쟁이, 질문쟁이, 참견쟁이,
편식쟁이
나. [떨다/부리다] 가식쟁이, 아부쟁이, 애교쟁이
다. [치다] 구라쟁이(‘거짓말쟁이’), 사기쟁이
라. [내다] 생색쟁이

(23가)는 ‘게임을 하다, 공부를 하다, 내기를 하다’와 같이 ‘하다’와 결합 가능한 예들이다. 다만 ‘술, 마약, 뽕, 약’ 등에서는 ‘하다’가 ‘먹다/마시다’를 대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다’의 성격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폭넓게 ‘하다’ 결합형에 넣기로 한다. (23나)는 ‘가식/아부를 떨다, 애교를 부리다’로, (23다)는 ‘구라/사기를 치다’로, (23라)는 ‘생색을 내다’로 쓰인다. 이 부류는 앞의 ‘거짓말쟁이’류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다음은 상태성을 나타내는 어기에 ‘-쟁이’가 결합하여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어들이다.

- (24) 가. [하다/타다] 날씬쟁이, 깔끔쟁이, 소심쟁이, 꼭자무식쟁이, 쑥스럽쟁이⁴⁸⁾

나. [많다/있다] 걱정쟁이, 한숨쟁이, 끼쟁이, 센스쟁이, 인기쟁이, 재치
쟁이

(24가)의 예는 ‘날씬하다, 깔끔하다, 소심하다’ 등 어기가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다. “날씬한 사람, 깔끔한 사람, 소심한 사람, 쑥스러움을 타는 사람” 등의 기본 의미에 ‘매우/아주’와 같은 [강조]의 의미가 부가된다. ‘쑥스럽쟁이’의 어기 ‘쑥스럽’은 ‘쑥스럽다’의 명사형으로 생각하여 ‘쟁이’를 결합한 예이다.

(24나)는 ‘걱정/한숨/끼/인기/재치’ 등이 많거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파생어 ‘X-쟁이’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 예에서도 ‘날씬쟁이, 센스쟁이, 재치쟁이’ 등은 낮춘다는 의미보다 친밀함이나 귀엽게 부르는 말 정도로 접미사의 의미 가치가 상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쟁이’가 긍정적 의미를 지닌 어기에 확대되어 결합함으로써 개량적 의미 변화를⁴⁹⁾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예들로는 다음이 있다. 이들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살펴보자.

(25) 가. 꿀쟁이, 줍쟁이, 스시쟁이, 가방쟁이, 매듭쟁이, 소품쟁이, 가구쟁이,
뜨개쟁이, 머리쟁이, 우산쟁이, 벌쟁이
나. 도촬쟁이, 찰쟁이, 낙서쟁이, 기록쟁이, 리뷰쟁이, 이슈쟁이, 허풍쟁이
다. 매력쟁이, 호기심쟁이, 샘쟁이, 불만쟁이, 질투쟁이

(25가)는 ‘꿀/줍/스시’ 등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의미한다. ‘웃쟁이’(“웃을 만
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⁴⁸⁾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예로 어

48)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 규범 표기는 ‘쑥스러움쟁이’이다.

49) 심재기(1982: 205-213)에서는 단어 의미가 평가상으로 경멸적 발전(pejorative development)과 개량적 발전(ameliorative development)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경멸적 의미변화의 예로 ‘사모님, 영감, 계집’ 등을 들고, 개량적 의미변화의 예로 ‘공갈(恐喝), 영악(獍惡)하다, 소생(小生)’ 등을 들고 있다.

기X를 만들어 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상호명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쟁이’ 결합형을 상호명으로 쓰는 것은 전문성과 일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가구쟁이, 매듭쟁이, 우산쟁이’와 같은 예는 ‘가구장이, 매듭장(“조선 시대 육조 가운데 공조에 속하여 매듭을 만드는 장인”), 우산장이(“직업적으로 우산을 만드는 사람”)'라는 ‘장이’ 결합형이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가방쟁이, 뜨개쟁이’도 표준어 규정에 따른다면 ‘가방장이, 뜨개장이’로 쓸 수 있을텐데 ‘장이’가 아니라 ‘쟁이’로 쓰고 있다. 이는 ‘쟁이’ 형이 일반화되면서 ‘장이’가 지닌 기술자의 의미를 전문성으로 표현하고 ‘몰두하는 행위’의 의미까지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는 ‘장이’ 형이 ‘쟁이’ 형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장이’가 지녔던 ‘전문성’이나 ‘장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어 받으면서 ‘열정’의 의미까지 표현하여 의미상으로도 가치가 상승하는 개량적 의미 변화를 겪는 것이다.

(25나)는 주로 행위에 의미 초점이 있는 예들이고 (25다)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신어의 예들에서도 4장에서 다룬 ‘쟁이’의 용법을 큰 틀에서는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러나 형태가 ‘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여 ‘쟁이’가 ‘장이’의 의미도 포괄하면서 의미도 개량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장이’와 ‘쟁이’ 파생어의 의미 자질이 어떻게 확대되어 연결되는지 그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6) ‘X-장이’의 의미 자질 변화 과정

1. 기술자 ⇒ 손을 쓰는/육체를 쓰는 (기술자) ⇒ 비하: ‘연극쟁이, 무식쟁이’



전문직 ⇒ 몰두하는 행위/열정: ‘광고쟁이, 커피쟁이, 매듭쟁이’

2. 직업 ⇒ 반복적/습관적 행위: ‘거짓말쟁이, 기록쟁이’

⇒ 사람의 습성/특성: ‘무식쟁이, 매력쟁이’

⇒ 친밀 지칭 : ‘끼쟁이, 인기쟁이’

먼저 ‘장이’ 파생어가 지닌 ‘기술자’의 의미 중에서 “손을 쓰는, 육체를 쓰는 (기술자)”이라는 의미가 사회적 평가를 반영하여 ‘비하’의 의미를 파생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장이’-‘쟁이’의 음운론적 변화 과정이 기본적으로 낮추는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 ‘장이’가 의미하는 직업이 주로 육체를 쓰는 직업이므로 낮춤의 의미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쟁이’ 결합형이 ‘비하’의 의미 자질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며, ‘연극쟁이, 무식쟁이’ 등에 약간의 ‘비하’ 의미가 포함된다.

또 ‘기술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므로 ‘전문직’이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몰두하는 행위’나 ‘열정’을 의미하는 자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극쟁이’에서 ‘커피쟁이’와 같은 신어가 만들어지고 다시 ‘매듭쟁이’가 만들어진다. ‘매듭쟁이’는 ‘기술자, 전문직, 열정’ 등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며 ‘-장이’와 ‘-쟁이’ 형태가 ‘-쟁이’로 통합되는 모습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장이’가 지닌 ‘직업’이라는 의미는 ‘반복적이고 습관적 행위’로 추상화 및 확대될 수 있을 듯하다. 직업은 늘 하는 일이므로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거짓말쟁이’ 부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미가 일반화되어 ‘사람의 습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무식쟁이, 매력쟁이’와 같은 예로 확대되어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신어에는 ‘끼쟁이, 센스쟁이’와 같은 예들이 있어 ‘친밀 지칭’의 의미까지 부가되는 듯하다. 예에 따라 이들 자질을 모두 갖는 경우도 있고 일부 자질만 갖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의미 자질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장이/-쟁이’ 파생어의 의미 자질

	[기술자]	[직업]	[전문인]	[비하]	[습관적 행위]	[천밀 지칭]	[사람의 특성]	[열정]
구두장이	+	+	+					
그림쟁이		+	+	+				
거짓말쟁이					+			
무식쟁이				+			+	
영감쟁이				+		+		
광고쟁이		+	+	+				+
축구쟁이		±	+					+
인기쟁이						+	+	
매듭쟁이	+	+	+					+

6. 결론

이제까지 사람을 가리키는 ‘-장이/-쟁이’ 파생어를 대상으로 어기와 접사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어기의 부류에 따라 파생어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쓰이는지 고찰하였다. ‘-장이’가 ‘장인’의 의미에서 의미의 약화 내지 추상화를 겪으면서 형태도 ‘-쟁이’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어기에 따른 의미 자질의 변화 과정을 통해 파생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이’는 [X-장(匠)-이] > X[-장이]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접미사가 되었으며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기술자, 직업인’의 의미를 갖는다. ‘-장이’의 어기는 구체물이 대상(‘가구장이’), 재료(‘구리장이’)가 되는 예가 있으며, 행위(‘가칠장이’), 장소(‘궁방장이’), 인간(‘대장장이’) 등 다양하여 어기와 의미 관계에 따라 파생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둘째, ‘-쟁이’ 파생어 중 ‘그림쟁이’류는 재구조화된 ‘-장이’가 결합하여 ‘그림[-장이] > 그림[-쟁이]’로 변화되었으며 ‘-장이’와 의미상의 관련성을 유지한다. 즉 ‘전문 직업인’의 의미를 유지하고 ‘비하’의 의미 자질을 얻게 된다. 이는 ‘-장이’가 지닌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손이나 육체를 쓰는 직업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거짓말쟁이’류는 어기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장이’가 지닌 ‘직업’이라는 의미가 늘 하는 일이므로 습관적 반복 행위의 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이 의미가 일반화되어 ‘사람의 습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무식쟁이’류로 쓰이게 된다. 전자의 ‘거짓말쟁이’류에는 비하의 의미가 거의 없으며 ‘무식쟁이’류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다.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기에는 상태(‘무식쟁이’)나 성질(‘꼴꼴쟁이’)을 지닌 예를 비롯하여 추상적 대상인 종교(‘동학쟁이’), 병명(‘매독쟁이’) 등이 있고, 구체물(‘갓쟁이’)도 해당된다.

넷째, ‘영감쟁이’류는 여기인 ‘영감’과 파생어 ‘영감쟁이’의 지시 대상이 동일하며 ‘비하’의 의미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친밀 지칭’의 의미를 부가한다. ‘친밀 지칭’의 의미 자질은 신어의 ‘끼쟁이, 센스쟁이’ 등 최근의 단어들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다섯째, 최근 조어된 ‘쟁이’ 파생어는 ‘건축쟁이, 광고쟁이’처럼 ‘건축가, 광고인’과 같은 기존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춤쟁이, 축구쟁이’ 등 특정 대상에 몰두하는 열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몰두하는 행위’의 자질은 ‘장이’가 지닌 ‘전문직’이라는 자질이 확대되어 쓰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조어된 신어에서 ‘매듭쟁이’처럼 ‘장이’로 써야 할 단어에도 ‘쟁이’를 써서 형태가 통합되는 모습도 보인다. ‘매듭쟁이’류는 기술자, 직업인, 전문인, 열정의 의미 자질을 모두 표현한다. 따라서 ‘쟁이’는 평가상으로 개량적 의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장이/-쟁이’ 파생어들은 표준어 규정과 달리 최근 신어에서 형태나 의미의 변화를 보인 예들이 다수 있었다. ‘쟁이’ 관련 단어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어기도 확장되고 ‘쟁이’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이/-쟁이’ 파생어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지만 이 접미사와 의미상으로 밀접히 관련되는 ‘꾸러기, -꾼, -뱅이’ 등 유사 접미사가 결합한 어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좀 더 확장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참고문헌

- 강은국·강영(2002), 남과 북의 어휘 사용의 이질화에 대한 소고,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 국립국어연구원, 127-136.
-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국어학회, 105-135.
- 권순구(2010), ‘(한자/명사)어기+이’ 구성 접미사의 의미,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5-26.
- 김일환(2014), 신어의 생성과 사용-사람 관련 명사를 대상으로-, 《어문연구》 42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7-176.
-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20, 국어연구소, 58-79.
- 노명희(2006),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48, 국어학회, 259-290.
- 노명희(2009), 국어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54, 국어학회, 275-302.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국어학회, 295-325.
- 박호관(2005), 청소년들의 신조어 생성과 형태의 기능 변이-서울과 대구 지역 고교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5, 우리말글학회, 75-106.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이기문(1968),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재검토, 《동아문화》 8,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5-248.
- 이선웅·이승희·정희창(2015), 《한국어 정서법》,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성현(2007), 세종 전자사전의 어휘 의미 부류 체계, 《새국어생활》 17-3, 국립국어원, 51-67.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56-165.
- 이지양(2003),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한국학》 26-3, 한국학중앙연구원, 211-239.
- 정민영(2005), 한자어 어근 ‘童, 匠, 直’의 국어 접미사와 과정, 《어문연구》 47, 어문연구학회, 101-120.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호(2004), 의미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 《국어학》 43, 국어학회, 461-485.
조항범(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홍운표(2005), ‘미장이’의 어원, 《새국어소식》 85, 국립국어원.
홍재성(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제1교수회관 40408호]

전화: 02-760-0242

E-mail: myenghi@skku.edu

투고 일자: 2021. 08. 11.

심사 일자: 2021. 08. 20.

게재 확정 일자: 2021. 09. 07.

Suffixal *jang-il/jaeng-i* derivatives denoting humans in Korean

[Noh, Myung-Hee]

사람을 가리키는 ‘-장이/-쟁이’ 파생어 [노명희]

This paper focuses on ‘-*jang-i*/-*jaeng-i*’ derivatives denoting humans, and aims to explain the semantic extension in terms of semantic classes of their bases. ‘-*jang-i*’ was rendered into suffix through the restructuring from [X-*jang*(匠)-*i* to X[-*jang-i*], and semantically confined to “practitioners engaged in manual industry”. ‘-*jang-i*’ combines with various word bases and denotes ‘technician, skilled worker’, which applies to ‘-*jaeng-i*’ derivatives. The type of ‘*geurim-jaeng-i*’ maintains semantic relatedness with ‘-*jang-i*’ while keeping the meaning of ‘vocation’, ‘technician’. Added to these meanings, some disparaging meaning derives from ‘technician’ meaning of ‘-*jang-i*’. The type of ‘*geojitmal-jaeng-i*’ went through the semantic extension from vocational meaning of ‘-*jang-i*’ to the meaning of habitual acts, while the type of ‘*musik-jaeng-i*’ represented the human characteristics or properties. The latter type has various word bases such as state(‘*musik-jaeng-i*’), character(‘*ggomggom-jaeng-i*’), belief(‘*donghak-jaeng-i*’), disease(‘*maedok-jaeng-i*’), commodity(‘*gat-jaeng-i*’) etc. The type of ‘*yeonggam-jaeng-i*’ has the same referent with the base ‘*yeonggam*’, but has overtone of familiarity furthermore. This overtone of familiarity also appears in the newly coined words such as ‘*ggi-jaeng-i*, *ingi-jaeng-i*’ etc. The distinctive features of newly coined ‘-*jaeng-i*’ derivatives are such that their morphological shapes are unified into ‘-*jaeng-i*’ forms including the former ‘-*jang-i*’ derivatives (ex. ‘*maedeup-jaeng-i*’) and underwent an ameliorative semantic change through adding the meanings of professionalism, zealousness to them.

Key words: ‘-*jang-i*/’-*jaeng-i*’ suffix, semantic classes of bases, restructuring, semantic feature, ameliorative semantic change